

연일 불별더위... KTX 철도 관리 비상

“레일이 쾨다, 온도를 낮춰라”

불별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3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승강장 인근. 그날 한 점 없는 피아발에 몸을 맡긴 시설관리팀 직원들이 ‘레일(Rail·궤도)온도측정기’를 레일에 대며 온도를 측정했다.

이 시각 관측된 기온은 32도였지만, 레일의 온도는 51도를 가리켰다. 같은 시각 ▲송정리역(32도)은 49도 ▲목포역(33도)은 53도 ▲장성역(33도)은 51도로 나타났다.

2시간여 동안 온몸이 젖을 만큼 땀이 비 오듯 쏟아낸 그들은 레일온도가 감속운전을 해야 하는 55도를 넘지 않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지사 170명 연일 구슬땀

시설관리팀 이광용(41) 차장은 “승객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더워도 꼭 참는다”며 “소나기 내리는 날에는 직원 모두가 흐트란 미소를 짓는다”고 말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KTX(고속철도)의 안전운행 관리에 비상이 걸

렸다. 강철인 레일은 열에 신축성 있게 반응해 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쉽게 팽창, 곡선 구간 등에서 궤도이탈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레일 1개당 길이는 2천m로 평균 27도 기준으로 설치했다면, 낮 최고기온이 35도일 경우 최대 18.24cm까지 늘어났다. 여기서 레일이 단 1cm 정도만 늘어나도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55도 넘어가면 ‘주의 운전’

KORAIL(한국철도공사)은 KTX 호남선의 경우 레일 온도가 ▲55~60도 ‘주의 운전’ ▲60~63도 70km/h 이하 ▲64도 이상 20km/h 이하 감속운행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엔 서대전기점 220km 지점인 함평역에서 레일온도가 55도까지 올라 열차들이 ‘주의 운전’을 했다.

KORAIL 광주지사에서는 원래 8명이 레일 관리를 도맡았다. 이들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온도를 측정, 상황실에 신속히 알

리고 있다. 또 레일 팽창률을 다시 조정하는 한편 길이 2.5m의 콘크리트 침목(枕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갈을 보충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불별더위가 계속되자, 지사 전 직원 170명 모두가 매달려 매일 레일 온도와 상태를 파악하며 사고 예방에 전력을 쏟고 있다.

“소나기가 제일 반가워요”

또 ‘주의 운전’ 이상의 온도 감지가 될 경우를 대비해 4천ℓ의 물이 담긴 살수차를 ‘하남역’에 항상 대기시켜 놓고 있다. 살수작업을 통해 10도 가량 낮출 수 있다.

광주지사 문성환(49) 시설팀장은 “직원들이 수시로 요주의 구간 등 레일온도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 직원들이 지난 23일 광주 하남역에서 살수차를 동원, 레일에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7291) 김장두



Advertisement for KCC and other services, including 'DS건설(주)', 'KCC건설(주)', and 'KCC인프라(주)'.

주택가 비디오방 성매매 알선

업주·다방 종업원 등 11명 입건

광주지역 주택가에 비디오방을 차려놓고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4일 비디오방 업주 정모(67)씨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방업주 이모(58)씨와 다방 종업원 신모

(여·25)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7월 초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서구 송촌동 모 비디오방에서 손님들에게 음란비디오를 보여준 뒤 인근 다방의 여종업원과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3천원씩 받는 등

12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3년부터 비디오방을 운영했지만 최근 손님이 줄면서 월세 25만원 조차 내기 힘들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방업주 이씨 등은 비디오방에 다방 전화번호가 적힌 화장지를 서비스로 제공한 뒤, ‘티켓요청’이 들어온 비디오방으로 신씨 등 여종업원을 보내 3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경찰 전북 절도 수사 착수

완도 등 양식 어민 수사 의뢰...검문검색 등 강화

전남지방경찰청이 “전북 절도 사건을 수사를 해 달라”는 어민들의 요구에 따라 양식장 주변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등 적극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전북 등 수산물 운반차량에 대해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번호·운전자 인적사항·적재 수산

물의 특징 등을 기록한 뒤 수사 자료로 활용, 수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출하증명서를 통해 생산자를 역추적하기로 했다. 육상과 가까운 양식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훔친 전북 등 수산물이 불법 유통되는 육지 경로를 차단해 절도범을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이처럼 전북 절도 예방에 나선 것은 최근 완도·장흥·강진·해남지역 전북 양식 어민들이 전남경찰청에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3월 중순께 강진군 마량면에서 전북 4천500미(2천만원 상당)가 도난당하는 등 최근 전북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아 양식 어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택시 운전자 폭행 검사 특가법 적용 논란

“운행중에 폭행, 적용 불가피”
檢 “특가법 무리 폭행혐의 적용”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검사에 대한 처벌 법규는 무엇일까? 순천경찰은 지난 23일 택시 운전사를 발로 찬 광주 지방경찰청 순천지청 신모(34) 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특가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할 경우에는 위헌성이 커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신 검사가 차량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만큼 특가법 적용이 불가피 하다”고 검찰에 특가법 적용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검사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은 인정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

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 검사가 운전 중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조사 결과 직접 운전사의 몸을 때리지 않고 차량 내 의자를 발로 차 운전사에게 충격을 준 점 등으로 미뤄 특가법 적용은 무리이며, 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수사 지휘를 내렸다.

지난 4월께 발효된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게 된다.

폭행을 당한 운전자 김모(50)씨는 사건 이후 신 검사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검사는 지난 17일 밤 11시께 순천시 조례동 주공아파트 2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자 김씨를 발로 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무더위속 소나기

광주·전남 폭염주의보

주말인 25일과 휴일인 26일 광주·전남지역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다”며 “낮 최고기온은 30~34도까지 올라 덥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또 “광주와 대부분의 전남 지역에 폭염주의보(하루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하루 최고 열지수가 32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일사량이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휴일인 26일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 광주·전남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순천 37.1도를 최고로 낮 최고기온이 ▲함평 36.5도 ▲무안 35.9도 ▲광주 32.2도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19 폭염 특수구급대’ 운영합니다

전남소방본부 내달까지

폭염특보 발령시에만 가동되는 119 특수 구급대가 운영된다.

전남도소방본부는 24일, 기상이번으로 심화되고 있는 폭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시에만 가동하는 ‘119 폭염 특수구급대’를 구성, 다음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폭염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것이다.

도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전남도내 10개 소방서 20개 구급대에 ‘119 폭염 특수구급대’로 지정했으며, 열손상 환자용 필수장비 그리고 1급 응급구조사를 배치해 폭염환자 발생에 대처하기로 했다. 또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노약자 밀집지역 등 폭염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순회 구급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일하고 싶어요”

에 150명이 참가했다.

오는 12월 광주시 서구 중앙동에 개관하는 제2정부통합센터의 인력을 뽑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24일 광주금호생명 빌딩에서 열렸다. 50명을 모집하는 이번 행사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용사 부정 합격자 24명 자격증 박탈

이용사 국가기술 자격시험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돈을 주고 자격증을 딴 수험생들의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찰 수사를 지켜 본 뒤 부정 합격자 24명의 자격증을 박탈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을 전국의 전문가들에

게 위촉하는 전국 심사위원 인력 풀(pool)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광주지역 감독위원이 이용사 협회 간부 등 14명뿐이어서 부정 시험 발생소지가 높으며 따라서 수험생 24명 자격증을 박탈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을 전국의 전문가들에

배제된다. 한편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험생들로부터 모두 3천600만원을 받고 실기 부정 합격시켜준 한국이용사 협회 임원과 수험생 등을 적발, 조사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승용차·승합차 총들

1명 숨지고 8명 다쳐

24일 오전 7시8분께 영암군 삼호읍 수자원공사 앞 사거리에서 김모(34·영암군 삼호읍)씨가 운전하던 레간자 승용차와 이모(56·)씨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대불산단단지로 출근하기 위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최모(31)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이씨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영암=김한민기자 hnkim@

마트 등 판매 목에서

유해 타르색소 검출

광주와 전남·북지역에서 유통된 목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타르색소와 보존료가 검출됐다.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호남 지역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목 23가지에 대한 검사 결과 3가지에서 타르색소와 보존료가 검출됐다.

광주 북구 A업체와 전북 군산시 B업체에서 생산된 목에서 타르색소인 청색 1호와 황색 4호가 검출됐으며, 전북 정읍시 C업체에서 생산된 목에서는 데히드로초산이라는 보존료 성분도 검출됐다. /최권일기자 cki@

초등생 치마속 물가 촬영 50대 달미

○디지털 카메라로 초등학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50대 도서관 직원이 아이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달미.

○2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목포시 공공도서관 직원인 N(54·가능직 8급)씨가 지난 22일 오후 1시15분께 도서관을 찾은 J(9)양을 1층 노인실로 유인, 뒤에서 치마 속을 2~3차례 촬영했다는 것.

○경찰은 놀란 정양이 울면서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신고로 N씨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조사에서 N씨는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사진 파일(file)이 저장된 메모리카드(memory card)은 카메라와 분리해 버렸다”고 진술.

/목포=이상휴기자 lsh@

Weather forecast for August 25th (Wednesday, 13th day of the lunar month). Includes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conditions across various regions like Gyeonggi, Seoul, and Jeju. A table shows the daily temperature range (24-33°C) and a 6-day forecast with icons for sun, clouds, and rain.